**두루미**

두루미(학명: Grus japonensis)는 일본에서 살며 번식하는 유일한 두루미종입니다. 홋카이도 동부의 두루미는 일 년 내내 이곳에 머물지만, 유라시아 대륙의 두루미는 철새입니다. 두루미는 장수와 행복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일본 전통 예술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티브입니다. 두루미의 정수리 부분에는 붉은 피부가 드러나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림을 그릴 때도 머리 부분에 붉은 모양을 그려 넣습니다.

에도시대(1603~1867년)에는 두루미를 동일본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획과 서식 환경 파괴로 인해 점차 두루미의 개체수는 감소되었습니다. 그렇게 20세기 초까지 일본에 사는 두루미는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924년 구시로 습원에 서식하던 10마리 정도의 두루미 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겨울철에 먹이를 주고 보호 계획을 실행하여 두루미의 개체수는 현재 약 1,800마리까지 증가했습니다. 두루미는 특별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계절별 두루미의 생활사에 대해(겨울철의 섬세한 구애춤 등) 전시하고 있습니다.